

恭愍王代の 政治的 變革에 對한 一考察

—金鏞의 亂을 中心으로—

李 謙 周

敎養課程部

<要 約>

14세기 중엽, 高麗의 自主性 回復와 王權強化를 목적한 恭愍王의 反元·改革政治는 中途에 國內外로부터의 衝擊으로 峇미아나 새로운 局面을 맞게 되었다.

주. 元의 亂란세력(紅巾賊)의 2차에 걸친 대규모 침입은 高麗가 일시 首都 開京을 내놓아야 할 정도였다 더욱 적을 격퇴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王의 側近勢力으로 軍隊를 지휘하여 功을 세운 鄭世雲과 三元帥가 같은 側近의 1人으로서 參戰치 않았던 金鏞에 의하여 除去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鄭世雲 등은 초기 反元運動의 主要한 參與者들이었다. 이어 還都에 즈음하여 金鏞은 巡軍提調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興王寺의 變”을 일으켜 親王勢力의 핵심인물인 洪彦博등을 殺害하고 恭愍王의 弑害까지 기도하였는데 金鏞이 附元勢力과 연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金鏞의 亂자체는 金鏞의 處刑으로 結末지어졌으나, 그 결과 親王勢力으로 反元運動 推進勢力의 핵심 분자들이 모두 제거된 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恭愍王으로 하여금 이미 침축이 있었던 辛旽을 登用케 하는 하나의 因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 Study of the Political Change during King Kong-Min's Reign

Lee, Kyum-Joo

Dept. of General Education

<Abstract>

In the mid-fourteenth century King Kong-Min launched his anti-Yüan reformation policy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his autonomy and reinforcing his power. This policy came to face a new phase on account of the assaults from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The rebellious forces of the Yüan Dynasty made two successive invasions so that the Koryo Dynasty had no choice but to abandon her capital Kye-Kyung. Moreover, in the course of repelling the antagonistic forces, Chung Se-un and the three commanders under his banner, who as close attendants of the King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for the country, was got rid of by Kim Yong who didn't even join the war. Chung Se-un and his associates were important participants in the early anti-Yüan movement. Thereafter Kim Yong gave rise to the so-called "Rebellion of Heung-Wang-Sa Temple"(興王寺의變) b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killed Hong Un-Bak and his associates, and even attempted to assassinate the King. Later he turned out to be involved in the pro-Yüan forces. At last the rebellion itself was brought to an end by the execution of Kim Yong. As a result the central figures of the anti-Yüan movement were all

eliminated. Such a situation caused the King to pick up Sin-Don with whom he had previous contact.

I. 序 言

高麗 恭愍王代는 王朝의 중흥을 지향한 反元改革에 따라 政治的 變轉이 거듭되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政治過程에 대하여 한동안은 대체로 反元運動의 내용과 元·明 및 元의 叛亂勢力들과의 관계 등의 부분만 집중적으로 考究되는 형편이었으나, 이제 辛旽의 執權에 관한 문제가 論究되어 恭愍王 一代의 政治的 變革을 “高麗의 沒落”과 朝鮮의 建國에 관련하여 繼起的으로 認識할 수 있게 되기에 이르렀다.⁽¹⁾

즉 恭愍王은 “反元運動 推進勢力의 沒落과 武將勢力의 擡頭”로 말미암아 王權強化와 관련하여 辛旽을 登用하였으며, 改革企圖 자체는 自己矛盾의 한계에 부딪치고 마나 辛旽의 執權을 통하여 新進文臣階層이라는 새로운 政治勢力이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反元運動 推進勢力은 바로 金鑄의 政治的 陰謀 乃至「金鑄의 亂」에 의하여 몰락하였고, 武將勢力의 擡頭도 亂의 결과로 연유된 것으로 이해된다.⁽²⁾ 따라서 「金鑄의 亂」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辛旽의 登用을 보다 合理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절경이 된다고 하겠고, 나아가 恭愍王 後半期の 새로운 局面에 대한 認識에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本稿는 金鑄의 政治的 進出過程으로부터 亂의 결과에 이르는 推移를 보다 구체적으로 考究코자 하며, 나아가 이 작업을 통하여 어쩔부시나 亂의 性格에 대하여도 일단 해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본다. 물론 全貌의 파악조차 未及한 것으

로 우려되지만 筆者의 現況으로는 이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다만 關係 研究者의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II. 金鑄의 政治的 位置

金鑄의 出身과 특히 恭愍王 即位以前的 履歷에 대하여는 거의 나타난 바가 없다. 高麗史 列傳에 의하면 金鑄은 安城人으로, 恭愍王이 元子로서 入元 宿衛할 때 부터 侍從하였다고 하였다.⁽³⁾

그리하여 恭愍王이 即位하여 元으로 부터 귀국하기 전에 이미 本國과의 인락 임무를 맡았고, 먼저 귀국하여서는 倭寇를 防備하는 임무에 당하였다.⁽⁴⁾ 이를테면 王의 側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侍從한 공로로 大護軍이 되었다가, 恭愍王이 즉위하여서는 鷹揚軍上護軍에 除授하고 元에 奏하여 行省員外郎을 삼았다. 王 元年에 “贊成事 趙日新이 元使에게 칭하여 王의 側近을 謀害하기를 ‘班主 金鑄·承旨 柳淑·金得培 등이 居中用事한다’고 하였으나, 鑄만은 마야 흐트 흥애하여 파면하지 않았다”⁽⁵⁾고 한 바 있드시 金鑄은 恭愍王 初년에 이미 班主로서 兵權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⁶⁾ 그가 王 側近의 核心分子였다는 것은, 또

金鑄·洪義·鄭世雲·柳淑에게 逐口入宮하여 大小事 一切를 啓稟케 하였다.⁽⁷⁾

고 한 것등으로 보아 再言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 었다.

그런데 王의 側近으로는 柳淑·洪義·金得培·鄭世雲등도 나타나는 바, 특히 鄭世雲은 王의 入元時

(1) 1950년대까지의 論考가 대체로 元·明과의 관계, 또는 恭愍王 5年の 奇嶽一黨 肅清과 領土回復 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高麗內의 政治的 推移를 對外·社會經濟的 側面과도 연결하여 파악한 구체적인 작업의 결과는 1960년대 末頃に 나타났다. 閔實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 (歷史學報 38, 40輯 1968年 8月, 12月)

(2) 첫째, 上揭論文에서는 金鑄의 亂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考究를 유예하였다. 本稿는 거기에서 적지 않은 啓示를 받아 舊稿를 일부 改稿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둘째, 武將勢力의 대두에 대하여 上揭論文에서는 「金鑄의 亂」의 경정을 계기로 崔瑩 등의 무장이 정치적 實權을 장악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곧 王權의 弱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그 以前의 무장 시력이라고 할 이른바 反元運動 추진세력의 鄭世雲과 三元帥, 또는 金鑄을 포함한 이들과 恭愍王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示唆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 할 수도 있다.

(3) 高麗史 131, 列傳 卷 44 金鑄傳 “性品이 온중하고 機機이 있고 간사하고 시기심이 많았다.”고 하였다.

(4) 高麗史 世家 卷 38, 恭愍王 即位年 10月條.

(5) 同 列傳 金鑄傳.

(6) 同 百官志 西班 鷹揚軍條 末尾에 「又鷹揚軍上將軍兼軍簿典書者稱班主」라고 한 바 있다.

(7) 同 卷 38, 恭愍王 4年 冬 10月 乙亥條.

부터 待從하여 鑄에 못지 않은 信任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⁸⁾ 또한 그들은 他人이 王의 寵을 받는 것을 猜忌하고 妨害하는 일도 여러번 있었다. 王 4年 10月에는 密直副使 任君輔를 譴毀하여서 王旨를 詐傳하여 濟州로 流配 시켰고⁽⁹⁾ 이어 同年 12月에는 이들과 權倖을 다루던 金普가 母喪을 만나 돌아간 것을 機會로 普를 陰害하였다.⁽¹⁰⁾ 即 他人을 시켜 百官에게 三年喪을 行하도록 할 것을 王에게 請하고 鑄 등은 矯旨를 都堂에 내려 이를 施行하도록 함으로써 普는 오래도록 復職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實狀이 王에게 알려져 鑄은 濟州로 流配되었다.⁽¹¹⁾ 그의 流配가 언제 풀렸는가는 記錄上 나타나지는 바 없고, 王 5年 5月, 즉 反元策이 斷行된 직후에 僉議評理를 拜한 것이 나타난다.⁽¹²⁾

이로 보면 金鑄는 奇徹一派的 肅清이 斷行되기 수개월전에 遠方으로 유배되고 反元策의 진행과정에서 복귀하는 듯 한데, 王의 가장 信任하는 參謀中의 一人이었던 그가 同 反元策의 施行에 參加한 事實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그의 附元的인 어떤 연결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여하간 王 7年에 鑄은 中書侍郎門下平章事가 되고⁽¹⁴⁾ 以後 王 10年에 이르기 까지 그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王 6年 8月 以後의 일로 보이는 判密直 辛貴의 妻 康氏 私通事件에 있어서 金鑄는 權倖인 까닭으로 肅로 처벌을 면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¹⁵⁾ 다시 말하자면 王 5~10年에 있어서의 金鑄의 位置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鄭世雲등도 前述한 바와 같이 王의 信任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관계가 언제나 合心하여 他人의 進出을 막는 狀態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때 부터라고 단정 할 수는 없어도 그들간에는 權力鬭爭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王 5年 以後의 사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王 8年에 誅奇勳功臣을 封할 때, 鄭世雲은 知門下省事로

서 一等功에 錄하여 졌는데, 柳淑 또한 安社功臣의 鐵券을 下賜 받고 諸功臣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君子는 黨을 짓지 않는다. 나는 결코 黨派를 짓지 않을 것이다. 원컨대 諸公은 한마음으로 王室을 받들고 私黨을 없게 하라.⁽¹⁶⁾

이러한 發言이 반드시 權力層內部的 派爭有無를 分別하는 근거로써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柳淑은 끝까지 內部的 爭鬭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堪案 하던 趨勢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平賊功臣의 謀殺

한편 恭愍王 8年 12月, 遼陽을 공격하다가 元軍의 반격으로 二分된 紅巾賊의 일파인 毛居敬등이 이끄는 4萬餘衆이 結水된 鴨綠江을 건너 高麗로 侵入하였다. 麗廷에서는 李岫·慶千興·金得培등을 보내어 적을 막게 하였으나 미처 防備態勢를 갖추지 못한 틈을 타서 賊은 一擧에 南下하여 西京까지 占領하였다. 다음해 正月에 戰列을 갖춘 麗軍은 慶千興·安祐·李芳實·金得培等의 指揮로 西京을 奪還하고 繼續 攻擊하여 2月에는 賊을 完全히 擊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사이에도 倭寇의 掠奪이 그치지 않고, 더욱 數年間 大饑饉의 混亂으로 前次 侵入의 뒷수습을 할 여유도 없이, 다시 王 10年에는 潘訖·沙劉·關先生等이 이끄는 紅巾賊 10萬餘名이 侵入하였다. 麗廷은 다시 安祐·金得培·李芳實·鄭暉등으로 이를 막게 하고, 金鑄를 摠兵官으로 삼아 全軍을 指揮케 하였으나, 賊은 高麗의 防禦第一線인 岳嶺柵을 뚫고 계속 南下하였다. 이에 王은 同年 12月 福州(今 安東)로 避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어 賊은 首都 開京을 占領하였다. 福州에 이르러 鄭世雲이 摠兵官이 되었고 그동안 兵을 모아 鄭世雲의 指揮下에 總兵力 20萬을 安祐·李芳實·黃

(8) 同 列傳 卷 26 鄭世雲傳. 從恭愍入元宿衛 累官大護軍 王即位 錄其功爲一等與金鑄有寵於王... 은하나의 例에 불과할 정도로 世雲등에 대한 有寵云云의 記事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9) 同 卷 38, 王 4年 冬10月癸酉條.

(10) 同 列傳, 金鑄傳.

(11) 同 卷 38, 王 4年 12月 辛未條.

(12) 同 卷 39, 王 5年 5月 丁酉條.

(13) 同 列傳 金鑄傳에 奇徹등의 숙청에 關한 事實이 記해 나타나지 않고, 王 8年 6月에 誅奇勳功臣을 封하는데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奇徹이 除去된 뒤에, 그 아들 世傑의 妻를 私通한 일이 나타나지만 이로 말미암은 어떠한 영향도 없을 뿐더러 反奇氏가 바로 反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은 「趙日新的 亂」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14) 同 卷 39, 王 7年 春 2月 條.

(15) 同 列傳, 金鑄傳, 辛貴가 流配된 것은 同 卷 39, 王 6年 8月甲辰條에 나타나고 있다.

(16) 同 列傳 卷 25, 柳淑傳.

裳·韓方信·李餘慶·金得培·安遇慶·李龜壽·崔瑩 등 諸將이 分率하여 北進 끝에 王 11年 正月에 開京을 수복하였다.

이제 金鏞에 代하여 鄭世雲이 摠兵官으로 出征하여 三韓收復이라고 일컫어지는 大功을 세우기에 이르렀고 凱還할 경우 鄭世雲은 중심한 세력이 強化되는 반면 金鏞등 餘他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弱화될 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 그러한 점은 出勅時의 世雲의 傲慢한 態度에서도 一端을 엿볼 수 있었다.⁽¹⁷⁾

여기에서 가장 疑懼를 느낄 者가 鏞임은 勿論이다. 이제 金鏞과 鄭世雲등 사이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爭鬪는 不可避한 것이 된 셈이었다.

이에 鏞은 그의 姪인 前工部尚書 金琳을 시켜 矯旨로써 安祐等에게 密諭하기를 世雲을 圖謀하라⁽¹⁸⁾ 하고 또

世雲은 본래 柳들을 시가하니 賊을 破한 뒤에는 禍를 면치 못할 것이다. 먼저 도모하라.⁽¹⁹⁾

고 하였다. 이에 安祐와 李芳實은 金得培를 찾아가

지금 世雲은 畏賊하여나가지 않고 鏞의 使한이 이갈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²⁰⁾

고 한 즉 得培가 이에 反對하여

우리가 지금 서로 잘라 없애는 것은 잘못이다. 어쩔 수 없더라도 閣下에 執致하여 임금의 처분을 듣는 것이 옳지 않지는가.⁽²¹⁾

라고 하였다. 祐와 芳實은 돌아 갔다가 밤에 다시 와서 世雲을 죽인 것을 主張하였으나 得培는 如前히 反對였다. 祐와 芳實은 自己들의 主張을 固執하여 酒宴은 차리고 世雲을 招請하여서 酒席에서 擊殺하였다.⁽²²⁾

이로 보던 이들간에 意見이 一致하지 않았다는 것

(17) 同 列傳 鄭世雲傳에 世雲詣都堂 憤然揚言曰 吾甚寒微 如吾爲相 國家宜亂 竹嶺以南 居人扈駕者 不給糧 并從耳 此議已定 今何不然 紀綱乃爾 安能制難 謂柳淑曰 吾明日出帥 公其往簽軍 淑曰 諸軍已到竹嶺大院矣 世雲曰 軍若後期 公亦不得免責 淑即在督之 又謂鏞曰 今兩相 玩愒如此 孰不効耶 若不熾賊 縱竄隘山谷 可得而生 可得而國乎. 라고 한바 있다.

(18) 同 列傳 安祐傳.

(19) 同 列傳 安祐傳.

(20) 同 列傳 安祐傳.

(21) 同 列傳 安祐傳.

(22) 同 列傳 安祐傳.

(23) 同 列傳 卷 25, 柳淑傳.

(24) 同 安祐傳.

(25) 同 卷40, 王 11年春正月 辛未條.

(26) 同 卷 40, 同年 正月乙亥條.

(27) 同 安祐傳.

(28) 同 卷40, 王11年 2月 辛丑條.

(29) 同 卷40, 王 11年 2月 乙巳條.

(30) 同 安祐傳.

을 알 수 있고, 祐가 처음에는 鏞書를, 뒤에는 君命을 들면서 世雲을 圖謀할 것을 強力히 主張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祐가 世雲을 죽이고,

이미 摠兵官을 죽였다. 그런데 柳淑이 궁중에서 奏謀를 잘 내어 두려우니 다斬까지로 除去하자.⁽²³⁾

고 한 것이라던지, 鏞에 依해 擊殺 당하게 되었을 때,

잠간 늦추어라. 원전데 임금앞에 이르러 囊書를 바치고 죽겠다.⁽²⁴⁾

하고 소리친 사실 등은 석연치 못한 一面을 보여 주고 있다. 囊書는 鏞이 祐등에게 주었던 殺世雲의 書인 것이다.

이틀 뒤에야 將軍 陸忠의 報告로 世雲의 죽음을 안 王은⁽²⁵⁾ 混亂한 事態가 될가 念慮하여서 諸將에게 宥旨를 내려 主將을 殺害한 罪를 赦하고, 李芳實을 中書平章政事로 삼아⁽²⁶⁾ 그들을 安心하게 하였다. 즉 王은 처음에 直門下 金璵을 보내어 頒敕하려 하였던바, 福州守 朴之英이 李芳實의 독단적인 행동인듯 잘못 진한 말을 듣고 金璵을 召還하는 한편 도벌하는 군사를 출동시키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判事 金賢과 上將軍 洪師禹가 諸將의 「論世雲書」를 바침에 이르러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金璵을 파견하였다는 것이다.⁽²⁷⁾

이로 보던 王은 王權의 保衛에 급급 하였고, 사태에 대해서는 鄭世雲을 麾下諸將이 殺害한 것 以上으로는 알지 못한 듯이 보인다.

이어서 王은 遷都의 길에 올랐고⁽²⁸⁾ 祐等은 凱還途中이었다. 王이 尚州에 이르렀을 때 祐가 他將보다. 먼저 到着하여 王을 謁見코져 行在所로 갔다. 이때 鏞은 이들을 圖謀하여, 中門으로 들어서는

祐를, 門者를 시켜 擊殺하였다.⁽²⁹⁾ 王은 世雲을 殺害한데 대한 노여움은 컸으나 이들을 除去할 意思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祐의 죽음을 모르고 旨를 내려 말하기를

너희들이 鄭世雲을 擅殺한 큰 죄에도 너희들 죽이지 않는 것은 큰 功勞가 있기 때문이다.⁽³⁰⁾

라고 한바 있다.

鏞은 이렇게 祐도 죽이고 眞相이 들어날 가두려 뒤 그의 姪 金琳을 斬한 뒤에 王에게 말하기를

安祐등이 主將을 擅殺한은 殿下를 무시한 것이니 그 죄를 赦함이 不可합니다.⁽³¹⁾

라고 자신이 祐를 죽인 것을 正當化하였다. 이어 大將軍 吳仁澤·御史中丞 鄭之祥등을 보내어 芳實과 得培를 잡게 하였다.⁽³²⁾

이때 芳實은 行在所를 向하여 龍宮縣에 이르러 이들에게 擊殺되었다.⁽³³⁾ 得培는 基州에 이르러 이러한 事實을 알고 逃亡하여 山陽縣에 숨었으나 그의 妻를 잡아 鞫問하게 되어서는 妻母의 自白으로 잡히어 목베어져 尚州에 梟首되었다.

鏞이 이들을 除去한 것은 아마 豫定된 行動이었던 듯하다. 그것은

祐·得培·芳實등이 大功을 이루어 王의 중히 여기는 바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祐등을 시켜 世雲을 殺害케 하고 이를 죄삼아 모두 죽였다.⁽³⁴⁾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因以爲罪云云」은 勿論이나 이들 三元帥의 功을 猜忌한데 대하여는 前述한 바 있드시 三元帥는 이미 王8年 1次 紅巾賊의 侵入時에도 큰 功을 세워 功臣號까지 받은 바 있고, 이어 이러한 大功을 또 세웠으니, 뒤에 이들을 稱頌하여 三韓을 再造하였다고 하는 것

으로서 그들의 位置를 알 수 있다.⁽³⁵⁾

鏞이 世雲과 함께 이들을 두려워 한 것도 無理는 아니었다.

이렇게 鏞은 世雲·三元帥등을 除去하고 自己의 勢力을 強化하여 실제로 政權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世雲·三元帥의 謀殺이 전혀 自己의 所爲라는 것이 들어날 境遇에 대한 不安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王은 事態의 變轉에 따라 뒷 수습이나 할 수 밖에 없어 모든 것이 일단은 鏞의 뜻대로 되었으나 王自身은 世雲에 대하여 倚信한 바도 컸지만 三元帥도 除去할 意思가 없었던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오히려 이들의 죽음에 대한 反響은 대체로 同情的인 편이었다.⁽³⁷⁾

IV. 官制의 復改

恭愍王一代에 4次에 걸친 全面的인 官制改革이 시행되었는데 그 第2次 개혁은 金鏞이 權力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王11年 3월에 斷行되었다.⁽³⁸⁾ 그러면 이 官制의 變動은, 鏞의 亂을 中心으로한 當時의 政治的 變化에서 어떠한 意義를 갖는 것일까. 우선 內容을 살펴봄으로서 그 點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高麗史 百官志 序文에

恭愍王이 王位를 이은지 20年間에 官制를 고친것이 4번인데 혹은 舊制를 따르고, 혹은 新制를 써서 번잡함 어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하였듯이 王代의 官制變動은 混雜한바 가 많다. 그러나 王5年の 第1次改革은 文宗舊制로의 復古라는 것이 明確하다.

이제 11年の 改革의 性格을 알기 爲하여는, 以前 一忠烈王 以後로 元의 干涉下에 고쳐진 것과 王5年の 것을 比較하여 理解하여야 겠다.

(31) 同 安祐傳.

(32) 同 安祐傳.

(33) 同 安祐傳.

(34) 同 安祐傳.

(35) 同 安祐傳.

(36) 이들의 功에 對하여 여러가지를 보지 않더라도, 1次紅巾賊의 侵入을 擊退한 功으로 王이 玉帶를 芳實에게 賜하였는데, 公主曰 何不愛 至寶輕以與人 王曰 使我宗社 不爲兵墟 百姓不爲魚肉 皆芳實功也 予 雖割肌膚 以與之 尚不能報 況此物乎 한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37) 이러한 反應은 王이 祐의 죽음을 안 뒤에는 其幼子 樸立道旁哀之 召留禁中 問其所歸 遺之.(祐傳) 하였고, 同傳에 또

(得培)梟首于尚州 年五十一 觀者 莫不嗟悼 得培門生直翰林鄭夢周 請王收屍爲文以祭曰 嗚呼皇天 我罪伊何……

(中略)……克復三韓之業 凡今之人 食於斯 寢於斯 伊誰之 功歟 雖有其罪 以功掩之可也 罪重於功 必使歸服其罪然後誅之可也 云云과,

芳實子中文 祐子年甫十餘 遊市街 人爭以物饋之曰 今我輩 獲安寢食 三元帥之功也 至有垂涕者.

라 한것을 보면 其功의 譽과 同情的인 反應을 알 수 있다.

(38) 同 卷40, 于 11年 3月 條.

忠烈王 代의 改革에 대하여 同 百官志 序文에

自忠烈 改官制 凡擬上國者 悉改之.

하고 한다 있다.

먼저 恭愍王 5年의 復故를 대강 추려 보자. 이것은 아울러 忠烈王代의 改革을 理解하는 것도 될 것이다.

忠烈王代에 罷하였던 三師三公을 恭愍王 5年에는 復置하고

僉議府(都僉議使司)→中書門下省
密直司→樞密院

尚書六部를 廢合하여 四司로 하였던 것을 다시 分離하여 六部로 하고

監察司→御史臺
文翰署→藝文館·春秋館→翰林院·史館

으로 한 것 등을 볼 수 있다. 다시 官號의 變更을 보면

領(都僉議)→(中書)令
中贊~政丞→侍中
贊成事→平章事
評理→參知政事
判書→尚書
掾郎→侍郎
正郎→郎中
佐郎→員外郎
侍承~執義→中承
掌令·持平·糾正→(侍·殿中侍·監察)御史
提學→學士
令→卿, 또는 監
君→監, 또는 卿

으로 復故하였다.

이제 恭愍王 11年의 復改를 同 王 5年의 경우와 간략하게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5年	11年
三師·三公→	罷
中書門下省→	都僉議府
樞密院→	密直司
吏部→	典理司
戶部→	版圖司
兵部→	軍傳司
刑部→	典法司
禮部→	禮儀司
御史臺→	監察司

司天監→書雲觀

中書令→領都僉議
門下侍中·守侍中→僉議右政丞·左政丞
平章事→贊成事
參知政事→僉議評理.
尚書→判書
侍郎→掾郎
郎中→正郎
員外郎→佐郎

以上과 같이 忠烈王代에는 元의 간섭으로 元에 對等한 官廳~官職은 名稱을 바꾸고 降等되었으며, 或은 廢止되었고, 恭愍王 5年에는 이를 다시 文宗 舊制로 復故하였다.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全面的인 復故가 王 11年에 가서는 다시 元 支配下의 忠烈王代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相異한 點은 六部를 廢合하지 않고 그대로 司로 바꾸었다는 程度이다.

이렇게 金鋪이 權力을 장악하면서 시행된 官制의 變動이 忠烈王代에로의 復改였다는 것은 金鋪이 政治的으로 反元의 이 되지 못하는 立場으로 뒤에「興王寺의 變」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V. 興王寺의 變과 元의 德興君 雍立

한편 高麗의 정세가 金鋪의 術策에 따라 激變하는 시기를 前後하여, 元에서는 恭愍王을 廢位하려는 陰謀가 진행되고 있었다.⁽³⁹⁾

여기에서 平賊功臣의 謀殺로 말미암아 자신의 政治的 立場을 打開하고 安全을 도모해야 할 상황에 부닥친 金鋪이 이 恭愍王廢位의 陰謀에 加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崔瀾는 元 順帝의 奇皇后가 恭愍王을 원망함을 알고, 또 金鋪이 安陸公 誦將을 殺害하고 內應이 되어 의지하여 드디어 그 무리와 더불어 皇后를 설득하여 王을 廢하고 德興君을 세울것을 도모하였다. (中略) 元나라에서는 德興君을 세워 王을 삼고 奇三寶奴를 元子로 삼았으며, 金鋪은 僉三司事, 瀾는 스스로 左政丞이 되었다.⁽⁴⁰⁾

라고 한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이 廢位의 陰謀는 어떠한 것 이었나.

앞서 王 5年, 反元政策을 단행하고, 附元勢力의

(39) 元史 卷 46, 順帝 至正 22年 12月 20日條.

(40) 高麗史 列傳, 卷 44, 叛逆 5, 崔瀾傳.

(41) 元史 卷 114, 列傳 后妃第一, 完者忽都皇后奇氏.

(42) 高麗史 列傳 崔瀾傳.

巨頭 奇轍등을 肅清하였던 바, 奇轍의 姉인 元順帝의 第二皇后奇氏는 이를 원망하여, 그의 生子인 皇太子에게

네 어찌 나를 위하여 복수하지 않는가.⁽⁴¹⁾

라고 한 바 있듯이, 報讎할 것을 꾀하였다. 또 元에 가 있던 附元分子 崔濡등은 本國의 政權을 노리어, 后宮宦者로 高麗人인 朴不花와 同謀하고, 丞相 柳思監에게 까지 연결하였다.⁽⁴²⁾ 그러지 않아도 恭愍王의 反元態度를 불쾌히 여기던 元順帝는 이들의 말을 들어 恭愍王을 廢하고 高麗王族의 在元者를 王으로 세우려 하였다. 처음에는 瀋王 篤叟不花를 세우려 하다가, 篤叟不花가 끝내 固辭하였기 때문에 결국 忠宣王의 孽子 德興君 塔思帖木兒를 세우고 遼陽省兵 1萬을 發하여 高麗로 보냈다.⁽⁴³⁾ 그러나 崔濡등은, 慶千興·崔瑩등 諸將에 依하여 慘敗當하고 崔濡는 高麗로 押送 誅殺되고 말았다.⁽⁴⁴⁾ 元은 다시 恭愍王을 復位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이렇게 德興의 變이 一段落된것은 王 13年末이나 되어서 이었다.⁽⁴⁵⁾

한편 王11年 末에는 이미 麗廷에도 元이 王을 廢하고 德興君을 세웠다는 事實이 알려졌고 王은 內應이 있은가 疑心하여 곧 吏部尚書 洪師範을 西北面體覆使로 삼아 情僞를 탐지하게 하였다.⁽⁴⁶⁾

여기에서 鏞은 自己의 結托한 바가 綻露될 경우를 憂慮하였던 때문인지 「興王寺의 變」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아마 元으로 부리의 侵入과 그의 內應의 時期에 蹉跎이 생겨 舉事를 豫定보다 인척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王 12年 5月—「興王寺의 變」이 失敗로 끝난지 2個月後—에는 譯語 李得春이 元에서 돌아와 鏞의 結托事實이 알려지고⁽⁴⁷⁾ 德興君에게 가담하였다고 알려진 者에 대하여는 肅清이 斷行되었던 것이다.⁽⁴⁸⁾ 그것은 如何間에 鏞은 國內에서 政權을 잡고

있는 한편, 崔濡一黨—元의 壓力—과도 結托하고 있었으므로 亂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亂의 經過를 잠시 살펴보면, 三元帥등 謀殺의 事가 一段落된 後 王은 同年 8월에 尚州를 떠나 다음해(王12年) 2월에 開京 近郊에 到着하여 興王寺를 行宮으로 삼았다.⁽⁴⁹⁾

같은달에 鏞이 巡軍提調가 되었으니⁽⁵⁰⁾ 이는 鏞이 警察權을 장악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亂을 일으킬 武力的 準備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뒤에 鏞은 이 巡軍提調라는 職責을 自己의 保護色으로까지 최대한 이용하였다.

鏞은 同年 閏 3月 1日 밤에 그의 黨與인 金守·曹連등 50餘人을 密遣하여 行宮을 侵犯하여 王을 弑害하게 하였다. 賊은 守門者를 죽이고 침입하여 侍衛 金漢龍·評理 王梓등 數人을 殺害하고, 王의 寢殿까지 들어 갔다. 그러나 王은 太后의 密室로 들어가 숨어 禍를 免하였다. 이를 모르고 賊은 王과 容貌가 비슷한 宦者 安都赤을 王으로 알고 살해하였으며 다른 一群의 賊은 右政丞 洪彥博을 그의 집에서 擊殺하고 다시 留都宰相을 除去하려고 入城하였다.⁽⁵¹⁾

이때 妙蓮寺에 모여 있었던 左政丞 柳濯등 諸相은 變을 듣고 곧 巡軍에가서 兵을 드리고, 密直使 崔瑩·副使 禹暉·知部僉議 安遇慶·上護軍 金長壽 등이 兵을 이끌고 行在所로 달려가 賊을 盡殺하니 이어 亂은 鎮壓되었다.

그러고 鏞은 自身이 直接 行動에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亂後에 亂定功臣으로 策한 바 까지 되었다.

그러나 그의 行動은 이미 柳濯등 數人의 疑心하는 바 되었으니 耶,

① 鏞 혼자만 諸相이 다 모였던 妙蓮寺에 오지 않고, 巡軍에서 무리를 모아놓고 討賊한다고 陽言하면서 諸相에게는 先行하면 자신은 군졸을 모아 뒤 따르겠다고 속인 點,

(43) 同 崔濡傳.

(44) 同 卷 40, 恭愍王 13年 正月 丙戌條 및 同 11月 辛酉條.

(45) 同 王 13年 冬 10月 辛丑條 參照.

(46) 同 卷 40, 王 11年 12月 癸酉條.

여기에 吏部尚書라 한것은 異相하다. 이미 同年 3월에 官制가 바뀌어 다시 典理判書로 되었다.

(47) 高麗史節要 卷 27, 恭愍王 12年 5月 條.

(48) 同 卷 40, 王 12年 5月 癸巳條. 李公遂罷 以柳濯爲左侍中. (뒤에 李公遂에 對하여는 謾傳임이 밝혀 졌다) 및 同年 5月 丙申條 參照.

(49) 同 卷 40, 王 11年 8月 丁酉條 및. 同 王 12年 2月 癸未條.

(50) 同 王 12年 2月 癸巳條.

(51) 同 王 12年 閏月朔 辛未條. 亂의 經過에 對하여는 列傳 金鏞傳 參照.

② 그의 門客인 巡軍提控 華之元과 함께 잡혀온 賊들을 죽이어 입을 막고, 하나도 鞫訊하지 않은 點,

③ 廉梯臣에게 政丞을 拜한것을 祝賀하러 가서 「三患去矣」云운한 點 등이 疑心을 받게 된 行動이었다.

그리하여 鏞은 곧 行宮襲擊의 主謀者로 판정되어 密城郡에 流配되었고, 그 黨인 大護軍 高權·典理正 郎 華之元(亂當時 巡軍提控)등 數人은 被竄되었다. 鏞은 다시 同年 4월에 鶴林府로 옮겨 그곳에서 伏誅 되었다.

이제 「興王之變」에서 鏞黨에 依한 犧牲을 살펴보면 政丞 洪彥博·侍衛 金漢龍·評理 王梓·文睿府 左使尹 金台權·宦者 安都赤등과 賊을 鎮壓하다가 죽은 上護軍 金長壽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金鏞 一黨이 殺害코자 企圖한 가장 重要한 對象은 王과 洪彥博 및 柳淑등 王의 側近이었던 것 같다.

물론 王에 대한 反亂인 만큼 王의 側近을 除去하려 하였을 것이지만,

興王之變에 王이 密室에 피하여 들으니 賊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늦게 왔는가’라고 함에 ‘洪彥博·柳淑을 죽이느라고 늦었다’고 하였다. (52)

라고 한 것과 安都赤을 王으로 알고 죽였을 때와 洪彥博을 죽이고서 萬歲를 불렀다는 記錄으로 보거나 “三患去”라는 말을 설명하여

彥博이 勳戚으로 首相이되어 鏞이 비록 權力을 잡았

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53)

이라고 한 것 등으로 미루어, 鏞 一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洪彥博등이었음이 명백해진다.

Ⅶ. 結 語

金鏞의 亂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 끝났으나 그로 말미암은 政局의 變化는 커다란 것이었다.

먼저 恭愍王은 洪彥博을 비롯한 鄭世雲·柳淑·洪義등과 金得培, 李芳實, 安祐 등을 親王勢力으로 結集하여 反元改革을 추진하였다. (54)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除去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를테면 王이 그의 政策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로 이들 담당하여 추진할 세력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鏞이 이미 伏誅된 뒤 王은 追念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탄하기를, 가리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하고, 巡軍에 命하여 鏞黨에 대하여 다시 묻지 말도록 하였다. (55)

라고 한 바 까지 있는 것이다.

여하간 恭愍王은 이제 새로운 政治勢力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恭愍王代 後半의 새로운 局面이 招來되었다고 하겠다. 즉 鄭世雲이 妖僧이라고 죽이려고 까지 했던 辛旽이 「離世獨立之人」으로 평가되어 登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52) 同 柳淑傳.

(53) 同 金鏞傳.

(54) 池內宏：高麗恭愍王의 元에 對한 反抗의 運動(東洋學報 7), 閔賢九 前掲書(上) p.51~54. p.57~58.

(55) 同 金鏞傳.